

## 밀리터리 패션에 관한 연구

- 1960年代 以後 女性패션을 中心으로 -

金 志 映\* · 曹 圭 和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衣類織物學科 碩士,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 A Study on the Military Fashion

- Focusing on the Women's Fashion After the 1960s -

Kim, Ji Young\*, Cho, Kyu Hwa

MA.,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on the military fashion which has been inspired by the men's military uniform, is composed of an examination of the following ; the aspect on the women's hi-fashion and the street fashion and the analysis of its intention.

On hi-fashion, from the 1960s to the early half of the 1970s, by the influence of the minimalism, maintained its couture style, which is the formal image as well as moderating the line and simplifying the details. From the latter part of the 1970s to the 1980s, mannish image was sensed greatly by the wide shoulders with pads and large silhouette. The 1990's theme was the retro. Many different expression techniques appeared, but the trend was the retro.

However, on the streets, young generation and hippies wore unisex army mode because of the influence of anti-war movement. Also, Hell's Angels, punks used black leather jacket with Nazi symbol, badge and eyelet expressed to show their aggressiveness as an avantgarde fashion.

The intentions of military fashion can be analyzed as women's amazon need, the feeling of movement, and the spirit of rebellion.

## I. 서 론

현대의 패션 디자인에 있어 역사복식의 현대적 재현이나 외국 복식을 새롭게 조망하는 것은 디자인을 풍성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sup>1)</sup> 앤 홀랜더(Anne Hollander)는 어느 시기에서나 오랫동안 존재해 온 특정한 의복의 디테일을 재현시키는 것을 패셔너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전쟁시의 군복이나 외국 복식을 들 수 있다<sup>2)</sup>고 하였다.

남성의 군복에서 영감을 얻은 밀리터리 패션은 1,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당시는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군인이 사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일반 대중들의 의생활에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남성의 군복이 암암리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밀리터리 패션은 단순히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만 잠시 등장하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소진된 시기에도 꾸준히 등장하여 1960년대 후반과 1980년대 후반에 특히 유행하였고,

1990년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 유행하여 하이 패션이나 스트리트 패션을 망라하여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밀리터리 패션은 기능성이 중시되는 군복에서 디자인의 모티프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활동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그 뿐 아니라 군복 자체가 디테일이나 소재, 기타 액세서리 등에서 풍부한 디자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밀리터리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1, 2차 대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현대패션의 한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양상과 조형의지를 이해하려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196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초점을 두어 남성 군복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받은 밀리터리 패션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조형의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협의를 밀리터리 패션은 주로 육군복을 중심으로 하는 아미 패션(army fashion)을 뜻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육·해·공군의 군복이나 그것에서 힌트를 얻은 의복과 액세서리에 이르는 일체의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외적인 스타일 경향과 함께 그 내적인 조형의지까지 함께 다루면서 포괄적으로 '밀리터리 패션'이라 칭하였다.

## II. 밀리터리 패션의 원류와 그 배경

### 1. 1960년대 이전의 밀리터리 패션

1, 2차 세계대전은 밀리터리 패션을 출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이전의 밀리터리 패션은 양 대전을 중심으로한 사회·경제적 제반요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하였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대신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다.<sup>3)</sup>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생활이 요구되자 활동이 불편한 호블 스커트는 점차 언더 스커트 없이 오버 스커트만 착용하게 되었다.<sup>4)</sup> 또한 활동의 편의를 위해 중세 이래 처음으로 스커트 길이가 발목과 종아리가 보일만큼 짧아져 바닥에서 8인치 정도가 되었고 폭은 움직이기 편하게 적당히 넓어졌다.<sup>5)</sup> 19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세계박람회

에서는 허리선이 자연스럽고 활동이 편한 넓은 폭의 드레스가 출품되어 활동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1차대전 기간에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상하가 붙은 작업복인 보일러 슈트(boiler suit)나 활동적인 바지를 착용하였고 간호원이나 엠블라스 운전사, 무기공장의 생산직공 등으로 일하게 되면서 유니폼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성들도 테일러 슈트를 공공연히 착용하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여성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상복을 착용하였다.<sup>6)</sup>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직물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1918년에 실용복인 '국가 표준 의상(National Standard Dress)'이 외출복, 실내복, 이브닝 드레스, 나이트 가운 등으로 제작되었다.<sup>7)</sup> 당시의 디자이너들은 직물 사용량에 제한을 받았고 장식이 배제된 가능한 단순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미국의 기성복 제조업체인 Max Meyer에서는 1차대전이 터지자 군복에서 영감을 받은 카키색 슈트를 내놓았고 이후에 계속 더욱 부드럽고 몸에 잘 맞는 실루엣을 소개하였다.<sup>8)</sup> 파리에서는 오토 쿠튀르 디자이너인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가 봄 컬렉션에서 군복의 영향을 받은 코트를 발표하였고<sup>9)</sup> 1916년 샤넬(Chanel)이 큼직한 패치 포켓이 달린 재킷에 커다란 주름이 잡힌 당시의 여성 군복풍의 밀리터리 패션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2차대전에 비해 전쟁에 의한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않아 화려한 파리 패션이 여전히 미국에서 유행하였고 영국에서는 사치스러운 드레스가 선보였다.<sup>10)</sup>

1차 대전중에 작업복이나 유니폼 형태로 착용하기 시작한 밀리터리 패션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에 다시 테일러 슈트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평상복으로 많은 여성들이 착용하였던 각진 어깨의 테일러 슈트는 검정색, 회색 등의 어두운 색조로 침울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였다. 1930년대의 밀리터리 패션은 직접적인 군복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넓고 각진 어깨에서 오는 엄격함으로 나타났다. 전시대의 직선적인 실루엣에 대한 반작용으로 넓은 어깨와 상대적으로 가늘어 보이는 허리가 성숙한 여성미를 표현하였다. 스커트 길이는 다시 길어졌으며 코트와 슈트는 칼라와 단이 높게 달

려 군복의 분위기를 나타냈다.

1930년대의 넓은 어깨 실루엣을 주도했던 스키아 팔레리(Elsa Schiaparelli)는 군복을 응용한 디자인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녀는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밀리터리 패션의 공격적이고 매니시한 면을 약화시키고 여성스럽게 표현하였다. 1932년 2월 컬렉션에서 발표한 점프 슈트 스타일의 오버롤 파자마는 허벅지 부분이 풍성하게 디자인되어 편리하고 기능적인 것이었다. 1939년에 발표한 긴 케이프는 양쪽 어깨에 화려한 금속 견장을 덧대어 깃털달린 모자, 장갑과 함께 페미닌하게 표현되었다.<sup>11)</sup> 그녀는 1940년대에도 남성 군복풍의 테일러 슈트를 계속 발표하였는데 넓은 어깨와 통이 좁은 스커트로 역삼각형의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다.

1939년 발생한 2차 세계대전은 1차대전보다 더욱 규모가 컸고 전쟁의 영향력도 막강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사회 전반적으로 아끼고 재활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실용적인 스타일이 요구되었다. 이 시기에는 독창적인 것과 새로운 발명이 가치 있게 평가 받지 못했다.<sup>12)</sup>

남성인력의 부족으로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항공업체나 작은 규모의 군수업체 등에 고용되어 제조업이나 항공기의 엔진 생산, 총기 조립 등에 고용되었다. 여성들은 작업을 하면서 활동하기 편한 바지를 평상복으로 착용하였고 공습지역의 여성들은 계속되는 공습으로 '사이렌 슈트'를 입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쿠폰으로 패션시장을 통제하였다. 1941년 상무성에서 '실용계획(utility scheme)'을 공표하여<sup>12)</sup> 의복 품목마다 쿠폰수를 정하는 일종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여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디자이너들에게 매혹적인 실용복(utility garment)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1940년 1월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 파리에서 열린 컬렉션에서 여성의 테일러 슈트는 아직 군복의 영향을 덜 받은 형태였다.<sup>14)</sup> 스커트는 무릎 바로 아래까지 왔고 재킷은 아직까지 부드러운 실루엣이었는데 점차 스커트 폭이 좁아지고 어깨가 각진 밀리터리 패션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그림 1). 2차 세계대전중 많은 여

성들은 어깨가 사각으로 강조되고 스커트에 몇개의 주름이나 다트가 있는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의 테일러 슈트를 착용하였다.

전쟁동안 파리 패션이 침체에 들면서 미국이 일시적으로 패션의 중심지가 되었다. 파리의 패션과 격리되어 더이상 파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올 수 없었던 디자이너들은 군대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찾게 되었다.<sup>15)</sup> 디자이너 안나 밀러(Anna Miller)는 딱딱한 실루엣의 아이젠하워 재킷을 크레이프 소재의 부드러운 여성용 블라우스로 재현시켰다. 한편, 영국 탱크 부대의 베레모가 미국 여성들의 일상복과 함께 착용되었으며 A.S.U. 여성 군대의 캡은 반짝거리는 세퀸장식으로 여성스럽게 표현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밀리터리 패션은 1947년까지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전쟁때와 비교해 여성적인 변화를 보여서 딱딱한 어깨가 한층 부드러워 졌으며 넓은 어깨, 큰 포켓 등에서 밀리터리의 분위기가 지속되었고 점차 볼드 룩으로 발전하였다.

1950년대는 세계가 전쟁의 포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인 재건에 주력,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시기로 엘레강스하고 여성스러운 패션이 주를 이루어<sup>16)</sup> 전시대에 강세를 보였던 밀리터리 패션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 2. 1960년대 이후의 패션과 그 배경

1960년대 이후 패션계는 2차대전 이후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가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젊은층이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다. 「Life」지가 60년대를 팝 문화의 전성기라고 규정하였듯이<sup>17)</sup> 젊은이들이 새로운 음악, 패션, 심지어는 도덕성까지 이끌어 갔다. 1964년 메리 퀀트(Mary Quant)가 발표한 미니 스커트는 급변하는 시대 감각과 잘 맞아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억제되었던 여성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였다.

이시기는 인류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패션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의 1964년 컬렉션 'Moon Girl'은 참신한 디자인과 독특한 테일러링 기법으로 세계적인 주목과 찬탄을 받았

다.<sup>18)</sup> 미래파 디자이너 파코 라반(Paco Rabanne)은 공상 과학 영화의 주인공 같은 이미지로 갑옷을 모방한 메탈 느낌의 플라스틱 디스크로 드레스, 블루종을 발표했다.

우주 룩 같이 급진적인 패션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너무 극단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이것은 곧 입을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어 이 시대의 가장 트렌디한 테마가 되었고 1960년대의 팝 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패션이 되었다. 한편 1966년 영화 '닥터 지바고(Doctor Zhivago)'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미니의 열풍이 지속되는 경향과 대조적으로 종아리 길이의 러시아풍 밀리터리 코트나 긴 벨벳 스커트 등이 유행하였다.

1965년 발발한 베트남전이 10년을 끄는 장기전이 되면서 미국 사회 곳곳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고 반사회 운동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만연하는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방법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타고 등장한 히피들은 물질만능주의와 전쟁에 반대하였고 전세계적인 동포애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랑과 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매우 수동적으로 반전운동을 펼쳤고 신비주의적이고 정신적인 방향으로 정치적 투쟁을 이끌었다.<sup>19)</sup>

한편, 1960년대에는 경구 피임약이 대중화되면서 성문화가 개방화, 자유화되었다. 1967년 영국에서는 사생활에서 성인끼리의 합의하에 동성애가 합법화 되었다.<sup>20)</sup> 이와 같은 성적 역할의 붕괴는 패션에 있어서 로맨틱한 스타일을 거부하고 성적 구분이 안되는 유니섹스 모드로 나타났다.

1970년대는 젊음의 에너지가 충만하였던 1960년대와 대조적으로 경제적 불황과 테러 등으로 얼룩진 '냉소적인 70년대(Cynical Seventies)'<sup>21)</sup>였다. 1973년 중동전이 큰 분기점이 되어 다음해 오일 쇼크가 일어났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었다. 이 시대에는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정치적인 대립은 비행기 납치나 폭탄 테러 등을 낳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표현하여 다니엘 에슈테(Daniel Hechter)는 '78-'79 겨울 컬렉션에서 'IRA 트워드 룩'을 발표하였다.<sup>22)</sup>

1970년대에 여권 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었고 직업을 가진 커리어 우먼들이 더

욱 많이 생겨났다. 이들은 멋을 내기 위해 투자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이에 따라 남성적인 테일러링이 특징적인 코트나 재킷, 팬츠 등이 유행하였다.<sup>23)</sup> 남성복 소재인 화색 플란넬, 체크, 스트라이프 등이 애용되었고 밀리터리 스타일의 트렌치 코트도 인기 있었다.<sup>24)</sup> 이렇게 여성들이 매니시한 슈트 차림을 하게 되면서 1960년대 이후의 유니섹스 모드는 이 시대에도 계속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 기존 사회질서에 반발하며 충격적인 의상과 행동을 하는 펑크족들이 생겨나 험란하게 장식된 가죽 재킷이나 안전핀, 체인 등으로 공격적인 패션을 펼쳤고 이것은 하이패션에까지 도입되어 새로운 자극원이 되었다.

1980년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에어로빅, 헬스 등의 운동이 더욱 유행하였고 패션에 있어서도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이 인기를 더하게 되었다. 1982년 8월 「Time」지는 커버 스토리로 '여성의 새로운 아름다움은 강인함이고 여성들은 이를 위해 자신을 단련시킨다'고 하였다.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는데, 1960년대의 톱 모델이 트위기(Twiggy)처럼 아직 발육이 덜된 어린 아이같은 모습이었다면 이 시대의 모델들은 제리 홀(Jerry Hall), 메리 헬빈(Marie Helvin)처럼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들이었다.<sup>25)</sup> 이시대에는 바디 컨셔스를 지향한 구축적인 형태가 유행하였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유행한 테일러 룩은 패드를 넣은 넓은 어깨로 더욱 대담하고 매니시하게 표현되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전반기까지 지배적이었던 매니시하고 강인함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고 디자이너의 개성과 철학에 따라 각자의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과거에 유행했던 여러 스타일이 새롭게 변형되어 나타나는 복고풍(retro)이 새로운 패션 테마로 떠올랐다.

1990년대는 복고풍의 유행으로 모더니즘의 극단적인 합리주의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수많은 가능성이 공존하는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디자인의 발상을 얻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스타일이 끊임없이 반복, 변형되어 유행하였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풍의 이국적인 분위기

에 현대적 터치를 가미하여 새롭게 표현하였다.

한편, 1980년대부터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생태학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프르미에르 비죤(Première Vision)은 환경을 염두에 둔 자연 소재를 트렌드로 제시하여 이콜로지 패션을 주도하였다. 1990년대 이후 패션에서 이콜로지(ecology) 개념은 더욱 부각되어 자연과 잘 조화되는 브라운, 카키 등이 새로운 유행색으로 떠오르게 되어 군복의 색채가 새로운 유행색으로 부각되었다. 실제로 일본의 색채 전문가「Fashion Color」가 제시한 1990년 A/W의 유행색 중 한 테마가 군복색이었고<sup>26)</sup> I.W.S.는 1996년 A/W의 6개의 컬러 테마중 세번째가 군복색이었다.

### III. 밀리터리 패션의 양상

#### 1. 하이 패션

##### 1) 미니멀(Minimal) : 1960년대-1970년대 초반

1960년대의 패션은 활동적이고 단순하며, 젊은층의 생활감각에 맞는 실용적인 것이었다. 전체적인 패션 경향은 인체의 왜곡이나 과장, 과잉장식 등에서 벗어나 인체의 자연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밀리터리 패션은 동시대의 패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데, 이를 미니멀리즘<sup>27)</sup>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표현의 주관성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남게되는 본질적 요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20세기 이후 현대사회의 모더니티에 대한 열망에서 기인한 것이다.

1960년대의 밀리터리 패션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소형화(miniaturization)의 붐<sup>28)</sup>에 따라 직선적인 라인으로 작고 어린 소녀풍으로 나타났고 견장, 금단추, 패치 포켓 등 기본적인 디테일 중심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미니의 열풍으로 부츠가 많이 선보였는데, 부드럽게 표현되거나 체인이나 끈 장식 등으로 다소 무게 있게 장식되어 의례적인 군복의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였다.<sup>29)</sup>

1963년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는 직선적인 라인으로 플랩 포켓이 달린 스커트 정장이나 코트 형식의 밀리터리 패션을 발표하였다. 그가 발표한

일련의 밀리터리 패션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심플한 라인으로 승화시키려 했던 그의 패션철학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는 뛰어난 테일러링 기법으로 어깨의 견장을 컷팅선으로 표현하였다(그림 2).

1966년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의 마르크 보앙(Marc Bohan)은 가을 컬렉션에서 「작은 군인 : Petit Soldat」이라는 제목으로 밀리터리 패션을 발표하였다(그림 3). 이 컬렉션에서는 금속버클이 달린 벨트와 금단추, 어깨 견장이 달린 코트가 밀리터리의 분위기를 미니멀하게 나타냈다. 같은해 이브 생 로랑(Y.S. Laurent)은 금색 단추와 어깨 견장이 달려 있는 트라페즈 형 코트로 클래식한 밀리터리 패션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Vogue」지는 '이전까지의 페미닌한 형태와는 다르게 거대하고 드라마틱한 여성을 표현하였다.'<sup>30)</sup>고 하였다. 1966년에는 엘레강스한 패션을 주로 발표하던 발렌시아가(C. Balenciaga)도 짧은 바지에 패치 포켓과 견장이 달린 전형적인 밀리터리 재킷을 내놓았고, 니나 리치(Nina Ricci)도 해군의 세일러 복을 검정색 타이, 베레모와 함께 귀여운 소녀풍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1960년대는 우주룩의 유행으로 밀리터리 패션이 우주 비행사복과 같은 새로운 이미지로 확장되었다. 1965년 보니 카신(Bonnie Cashin)은 가죽소재로 점프 슈트를 발표하여 우주복풍의 밀리터리 패션을 선보였다. 한편, 미렐라 페티니(Mirella Pettini)는 주로 엘레강스한 코트로 디자인 되던 밍크를 1963년 사가 밍크(Saga Mink)의 선전에서 공군 비행사의 점프 슈트로 표현해 활동적으로 표현하였다.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스타일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 예가 4개의 패치 포켓과 허리벨트가 특징적인 사파리 룩이다. 1968년 이브 생 로랑(Y.S. Laurent)이 발표한 사파리 룩은 끈으로 된 앞여밈을 느슨하게 풀러 가슴부분을 자연스럽게 노출, 에로틱한 분위기를 보였다. 사파리 룩은 활동적인 분위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변형되어 1970년대 이후에도 유니섹스 패션에 자주 사용되었다.

1970년대가 되면서 밀리터리 패션은 미니멀한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스커트 길이가 길어져 좀 더 성숙한 이미지로 변했다. 1973년 가을, 웅가로(Emanuel

Ungaro)는 풍성한 라인의 케이프 스타일 코트와 베레모, 부츠로 전시대의 소녀풍에서 벗어나 좀 더 성숙하게 밀리터리 패션을 표현하였다. 1975년 지방시(Hubert de Givenchy)는 허리를 벨트로 묶은 팬츠 슈트에 카키색 케이프와 베레모로 밀리터리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는 밀리터리 패션이 쿠티르 풍의 뛰어난 테일러링으로 미니멀하게 표현되었다. 카키, 브라운 등 밀리터리 패션의 전형적인 색채보다는 검정이나 베이지, 기타 원색 등의 색채가 사용되었고 인위적인 과장없이 기능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에 견장이나 패치 포켓과 금 단추 등 특징적인 군복의 디테일이 사용되었다. 1960년대에는 주로 직선적인 소녀풍으로 표현되다가 1970년대가 되면서 성숙한 이미지가 풍기기 시작하였다.

## 2) 매니시(Mannish) : 1970년대 후반-1980년대

밀리터리 패션은 1970년대 후반부터 매니시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운동에 대한 열풍으로 전시대의 이상이었던 작고 귀여운 여성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건강하고 힘 있는 여성이 아름답게 여겨졌다.<sup>31)</sup> 건강과 힘을 상징하는 넓은 어깨는 이 시기 패션의 주된 흐름이었다.

이 시기에는 뱃지나 훈장 등의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밀리터리 패션을 표현하는 방법이 등장하였다. 검정색 선글라스나 캡, 파일럿 캡 등이 매니시한 분위기를 살려주는 액세서리로 사용되었다. 1975년 S/S 컬렉션에서 겐조(Takada Kenzo)는 카키색의 캐주얼한 셔츠와 바지에 파일럿 캡(pilot cap)을 눌러쓴 모습을 통해 전투하는 사병의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1983년 A/W 파리 컬렉션에서 클로드 몽타나(Claude Montana)는 검정색 가죽을 이용한 코트로 밀리터리 패션을 매니시하게 나타냈는데, 상체를 크고 넓게 하고 비행기 모형 등을 장식하여 공군 조종사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1985년 S/S 도쿄 컬렉션에서 마리오 코호가(Mario Kohoga)도 특전대 풍으로 애니멀 프린트의 코트에 검정색 선글라스와 가죽 장갑 등을 매치시켜 남성적인 강인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패딩 소재는 1980년대부터 밀리터리 패션에서 자주 등장하였는데 단순히 솜을 넣은 패딩 뿐 아니라 퀴팅 기법도 자주 등장하였다. 패딩은 소재의 부피감 때문에 볼드(bold)하게 나타났고 자연스럽게 매니시한 분위기를 날았다. '87-'88 A/W 파리 컬렉션에서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은 광택소재를 퀴팅한 두툼한 외투에 파일럿 캡을 매치시켜 화려하면서도 스포티하게 밀리터리 패션을 표현하였다.

이 시기의 밀리터리 패션은 구축적인 어깨라인으로 매니시한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1984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클로드 몽타나(Claude Montana)는 'colonial uniforms'를 테마로 하여 민속조의 밀리터리 패션을 전개시켰는데<sup>32)</sup> 넓은 가죽벨트로 조인 허리가 어깨를 더욱 넓게 강조하여 매니시한 분위기를 주었다. 1987년 11월 영국 「Vogue」지에 '밀리터리 쿠데타'란 테마로 실린 캐서린 워커(Catherine Walker)의 밀리터리 패션은 구축적인 형태와 뛰어난 테일러링 기술로 강인하면서도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보였다(그림 4).

1980년대의 밀리터리 패션은 편안함과 활동성을 중시하는 당시의 패션 흐름에 따라 매니시 하면서도 편안한 스타일(easy style)로 전개되었다. 1988년 6월호 미국 「Vogue」는 'easy style'이라는 테마에서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 등의 밀리터리 패션을 소개하였는데<sup>33)</sup> 부드러운 실크나 면 등의 소재에 오리털을 패딩한 사파리 재킷이나 트렌치 코트 등으로 따뜻하면서도 활동성 있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해군에서 영감을 받은 머린 룩은 캐주얼, 리조트 웨어로 밀리터리 패션 중에서 자주 등장하였고 종종 스쿨걸의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1984년 컬렉션에서 클로드 몽타나(Claude Montana)는 머린 룩을 부드러움을 간직하면서도 대담하게 표현하였고, 1989년도 샤넬에서는 스쿨걸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머린 룩을 발표하였다.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의 컬렉션에서는 밀리터리 패션이 자주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가지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련을 중심으로한 동구권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4)</sup> '87-'88 A/W 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 이브 생 로랑(Y.S.Laurent)을 비롯한 많은 디자이너들이 소련이나 동구권의 군복풍이 강하게 느껴지는 밀리터리 패션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그 여파에 대한 문화적 호기심을 밀리터리 패션을 통해 표현하였다. 둘째, 1989년이 프랑스 혁명 2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나폴레옹 시대의 군복이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더불어 2차대전 당시의 군복풍도 관심을 끌게 되었다.<sup>35)</sup> '87-'88 A/W 파리 컬렉션에서 아즈딘 알라이아(Azzedine Alaïa)와 헬무트 랑(Helmut Lang)이, 다음해에 마르탱 시봉(Martin Sitbon)이 카키, 네이비 등의 색채를 중심으로 하여 18·19세기 군복풍의 짧은 재킷이나, 라펠이 큰 코트 등을 선보였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매니시하게 군복을 표현하기 보다는 디자인의 요소만을 빌어와 은근하게 표현하였다.

이 시기에는 18, 19세기 군복과 더불어 2차 대전시의 군복풍도 유행하였다.<sup>36)</sup> 장 폴 고티에(J.P. Gaultier),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등은 2차 대전의 군복에서 영감을 받아 어깨 견장, 패치 포켓 등을 사용하였고 카키색을 중심 색채로 하여 밀리터리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 말부터 밀리터리 패션은 전반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색채나 디테일을 중심으로 부드럽고 페미닌하게 표현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밀리터리 패션의 주된 흐름이 되었다.

### 3) 레트로(Retro) : 1990년대

밀리터리 패션은 1980년대 말의 여세를 몰아 1990년대에 더욱 강세를 보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트렌드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인체를 과장하는 표현보다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살려주면서 색채나 디테일에서 밀리터리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1980년대말의 경향을 이어갔다. 1990년대 초반을 달구었던 밀리터리 패션은 '94-'95 A/W 파리, 밀라노, 도쿄 컬렉션에서 다시 나타났고 '96-'97 컬렉션에서는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밀라노 등 거의 모든 컬렉션에서 강세를 보였다.

1990년대 밀리터리 패션의 경향은 복고(레트로)로 볼 수 있다. 1995년은 2차대전 종전 5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2차 대전을 돌아보면서 디자인의 컨셉트를 1940년대 복식에서 잡게 되었다. 따라서 1996-97년 컬렉션에서 보이는 밀리터리 패션에서 특히 1940년대의 복고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무릎 길이 스커트, 허리에 벨트를 맨 재킷, 구축적인 테일러 슈트 등이 많이 선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는 1940년대의 딱딱하고 매니시한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해 슬림하고 페미닌하게 나타났다.

1990년대는 1980년대를 이어 이콜로지(ecology)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카키, 브라운 등의 색채가 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색채들은 자연주의적 성향을 지니면서 동시에 밀리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밀리터리 패션이 유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주로 색채가 밀리터리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막스 마라(Max Mara)에서는 '94-'95 컬렉션에서 주로 색채를 통해서 밀리터리 패션을 표현하였고 '96-'97 밀라노 컬렉션에서도 카키, 초콜렛 브라운 등의 색채가 밀리터리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밀리터리 패션은 1991년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시도했던 트렌드였고 겨울용 코트는 밀리터리 패션을 표현하는데 적격이었다. 1992년 8월호 「Vogue」지는 칼라거펠드(Karl Lagerfeld), 라이파트 오즈벡(Rifat Ozbek) 등을 비롯해서 여러 디자이너들이 롱 코트를 소개하였는데<sup>37)</sup> 주로 블랙과 카키를 위주로 금장식이 가미된 제복 스타일의 밀리터리 코트들이었다. 여기에 장교 캡, 장식적인 뱃지, 로맨틱한 버클, 군화 등이 밀리터리의 분위기를 더욱 살려 주었다.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은근한 터치로 밀리터리의 분위기만을 보여주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 경우는 그 표현이 세련되어 밀리터리 패션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군복의 모티프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1960년대의 미니멀한 밀리터리 패션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의 밀리터리 패션은 1960년대와는 다르게 군복의 엄격한 이미지가 사라지고 사무실에서 입을 수 있는 모던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94-'95 A/W 컬렉션에 프라다(Prada)에서는 허리에 금속벨트, 커

다란 플랩이 달린 버튼 다운 포켓과 카키, 베이지 등의 색채를 이용하여 모던하면서도 진취적인 여성상을 표현했고 '96-'97 뉴욕 컬렉션에서 도나 카란(Donna Karan)도 패치 포켓과 허리 벨트를 더욱 심플하게 변형해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에 적합한 세련된 슈트로 표현하였다.

'96-'97 컬렉션에서는 무릎 길이의 스커트, 허리에 벨트를 맨 재킷 등 1940년대 복고풍이 단연 강세였다. '96-'97 밀라노 컬렉션에서 이스탕트(Istante)의 자니 앤 도나텔라(Gianni & Donatella)는 1940년대 복고풍으로 패치 포켓과 어두운 색채로 로맨틱하게 표현하였다. 구치(Gucci)의 톰 포드(Tom Ford)는 1970년대 풍의 꼭끼는 스타일을 주로 발표하였는데 날카로운 어깨, 꼭 맞는 재킷, 케이프나 더블 브레스트의 르댕고트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샤넬에서도 '96-'97 파리 컬렉션에서 역시 40년대 복고풍을 보여주었는데, 잘 정돈된 느낌을 주는 4개의 패치 포켓과 허리의 금빛 벨트로 샤넬의 고급스러움과 엘레강스함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복고풍의 강세와 더불어 제복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은 엄격하고 품위있게 표현되어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1990년 S/S 뉴욕 컬렉션에서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금단추와 기병대 재킷 등 격식있는 슈트 스타일의 밀리터리 패션을 발표하였는데, 네이비, 레드, 화이트 등 원색적인 색채와 금단추를 이용하여 심플하게 표현하였다. '92-'93 A/W 파리 컬렉션에서 니나 리치(Nina Ricci)에서는 18·19세기 군복을 변형하여 원색적이고 화려한 밀리터리 재킷을 선보였고, 비블로스(Byblos)에서도 '94-'95 A/W 컬렉션에서 화려하고 위엄있는 나폴레옹 시대의 제복같은 롱코트로 귀족적인 쉬크한 멋을 표현했다.

이와는 반대로 전투복에서 영감을 받은 경우는 활동성을 강조하여 캐주얼화되어 나타났고 종종 적극적으로 밀리터리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공군 비행사를 연상시키는 점프 슈트를 이용하거나, 파일럿 캡이나 부츠, 파우치 벨트(pouch belt), 뱃지나 왓팬장식 등의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더욱 강하게 밀리터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미치코 고시노(Michiko Koshino)는 '92년 S/S, F/W 컬렉션에서 적극적으로

밀리터리 패션을 표현했다. S/S 컬렉션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파우치(pouch)를 이용하여 군복이 지니는 강인함을 강조하였고 F/W 컬렉션에서는 적십자 표시를 모티프로 하여 위생병같은 여군의 이미지를 아방가르드하게 표현했다.

적극적으로 밀리터리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으로는 자체만으로 밀리터리의 분위기를 확연히 드러내는 카무플라즈가 대표적이다. 이 무늬는 1980년대를 이어 1990년대에도 자주 등장하였는데 주로 몸의 윤곽선을 드러내는 스판 소재로 원피스나 보디 슈트 등에 이용되어 육감적으로 표현되거나(그림 5), 재킷, 바지, 티셔츠 등에 사용되어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군복이 지니는 강인한 이미지는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에 의해 미래적 표현과 접목되어 사이버, 갱스터 룩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장 폴 고티에(J.P.Gaultier)는 '94-'95 파리 컬렉션에서 독특한 화장과 갑옷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아방가르드하게 미래의 전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같은 컬렉션에서 파코 라반(Paco Rabanne)도 광택있는 메탈릭 소재로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96-'97 런던 컬렉션에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18·19세기 군복풍에 괴기한 화장과 머리장식으로 그로테스크한 미를 표현하였다.

1990년대에는 단순히 외형적인 디테일이나 색채로만 밀리터리 패션을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 내면적으로 전쟁의 비참함이나 암울함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94-'95 A/W 파리 컬렉션에서 콤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가와쿠보 레이(Kawakubo Rei)는 밀리터리 패션을 인간의 실존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삼고 낡고 오래된 모포같은 누추한 천으로 전쟁으로 인한 절망과 비참함을 표현하였다. 1980년대부터 밀리터리 패션을 자주 발표해온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96-'97년 파리 컬렉션에서 카키색의 색채와 낡아서 흐들거리는 느낌의 소재로 전쟁에 대한 암울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1990년대의 밀리터리 패션을 정리해 본다면, 이 시기에는 밀리터리 패션이 1940년대, 1960년대의 복고풍으로 나타나 밀리터리의 분위기를 은근하게 연출하



거나 혹은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등 극단적인 표현 양상을 보였다. 또한 아방가르드한 방향으로 확대되거나 전쟁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 2. 스트리트 패션

### 1) 스포티(Sporty) : 낡은 군복

1960년대 이후 스트리트 패션에서 낡은 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반전운동과 관련하여 청년들이나 히피들 사이에서 스포티한 감각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당대의 이슈였던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운동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반전감정과는 정반대로 젊은층에서 밀리터리 패션이 패드(fad)로 유행하였다.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착용한 낡은 군복은 반전운동에 참여했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육군복에서 영감을 받은 아미(army)룩의 형태로 유니섹스 모드화되어 전개되었다. 이것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정부의 보조로 대학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아미 패션이 캠퍼스에 퍼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sup>38)</sup>으로 보인다.

젊은이들은 블루진에 뱃지가 붙은 단순한 카키색 티셔츠를 착용하고 머리에는 별 모양의 뱃지나 US Army 로고가 새겨진 캡을 눌러 썼다. 소매에 뱃지가 부착된 군복 셔츠는 군인용 목걸이나 화려한 스카프로 장식하였고 끈 끼는 카키색 진이나 반바지 또는 혈령한 전투복 바지를 낡은 운동화나 가죽 부츠와 함께 착용하였다. 군복 직물이 지니는 내구성은 값싸고 질긴 옷을 입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이렇게 군복이 유행하게 되자 많은 젊은이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크고 낡은 군복을 새롭게 고쳐서 입게 되었다. 이들은 군복을 새로 고쳐 입을 때 초창기인 머리 시절의 비틀즈(Beatles)나,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 믹 재거(Mick Jagger) 등 록스타들의 기발하고 독특한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았다.<sup>39)</sup> 한편에서는 패셔너블하게 군복을 착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Ricio가 '카나비 스트리트' 그림엽서에 디자인했던 당시의 패션을 보면 남녀 모두 제복 스타일의 허름한 군복을 착용하고 있는데<sup>40)</sup> 깃털달린 모자나, 부츠, 머플러 등으로 장식하여 새로운 멋을 창조하였다.

한편, 1960년대에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의미없이 죽어간 베트남전에 대항하여 '사랑과 평화'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평화적인 반전 시위를 벌였던 히피들도 낡은 군복을 착용하였다. Elizabeth Rouse는 그의 저서 "Understanding Fashion"에서 히피 스타일을 에스닉, 노스탈지, 작업복, 군복 등 4가지 스타일로 제시하였는데<sup>41)</sup> 여기서 그가 군복 스타일로 제시한 것은 코트나 큼직한 카무플라즈 무늬의 재킷이었다. 물질적인 부를 비판하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던 히피들에게 군복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고 소재가 질겨 실용적이었다. 히피들은 튜닉 스타일의 드레스에 아이젠하워 재킷이나 카키색의 셔츠를 걸쳤고 당시 군수용품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군복, 군화, 군모를 통하여 정치적 지배권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였다.<sup>42)</sup>

낡은 군복을 입는 전통은 계속 이어져 군 작업복과 사파리 모자, 큰 사이즈의 점프 슈트 등이 계속 인기 있었다.<sup>43)</sup> 199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은 모즈, 테디, 히피, 사이키델릭, 펑크 등 과거에 유행했던 다양한 스타일이 새롭게 변화하거나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이 특징적이다.<sup>44)</sup> 이러한 경향에 의해 1990년대의 밀리터리 패션은 여러 양상이 복합되어 낡은 군복을 그대로 스포티하게 착용하는 것 외에도 이를 변형시켜 유머러스하거나 캐주얼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 2) 아방가르드(Avantgarde) : 검정색 가죽 재킷

아방가르드한 하위문화(subculture)에서 밀리터리 패션은 검정색 가죽 재킷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50년대 바이커족의 맥을 이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향의 젊은이들은 뱃지나 왓펜 등을 무질서하게 장식한 검정색 가죽 재킷을 착용하였다.

검정색 가죽 재킷은 소재가 주는 터프함과 내구성 때문에 스트리트 패션에서 끊임없이 등장하였다. 검정색 가죽 재킷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비행사들이 애용하였고<sup>45)</sup> 전쟁에서 나치가 패배한 이후에도 그 인기가 지속되어 대중매체에 의해 매력적인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영화 '와일드 윈'의 마론 브란도나 '이유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이 청바지 위에 검정색 가죽 재킷을 착용

한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당시 젊은이들이 착용한 가죽 재킷의 출처는 전쟁 후 남아 있던 보머 재킷(bomber jacket)이었다.<sup>46)</sup>

1960년대 이후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1950년대의 바이커 전통이 계속 이어졌는데, 전시대와 다르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를 보였다. 일명 'Hell's Angels'이라는 별칭이 붙은 폭주족들은 징 박힌 가죽 재킷에 체인이나 프린팅 장식을 하거나 밀리터리 패션의 액세서리인 뱃지나 금속 장신구등을 무질서하게 붙였고 나치의 swastika(어금 꺾쇠 십자 기장) 목걸이를 하였다. 또한 금속 체인이나 징을 박는 장식물과 함께 해군이나 공군을 상징하는 각종 팬던트를 부착하였다. 이러한 폭력적인 하위 문화는 70년대 말 펑크로 이어졌다.

James Laver가 지적하였듯이 펑크 복식은 가학적 면을 지니면서 문화, 예술을 파괴하였던 Hell's Angels의 오토바이 복식에서 시작되었다.<sup>47)</sup> 펑크의 공격적이고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독특한 차림새는 경제불황으로 실직한 젊은이들의 분노와 좌절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었다.<sup>48)</sup> 이들은 강한 느낌을 전달하기 쉬운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몸판이나 칼라, 플랩 부분을 과도하게 뱃지로 장식하거나, 소매 부분에 금속으로 제작한 왓펜 장식을 하였다. 이들은 타인들에게 경계감을 조성하기 위해 검은색 가죽 재킷이나 무질서한 장식이 가해진 군복 상의 등을 이용하였고 X자로 끈을 묶는 돌격대원의 군화나 현란한 색채로 염색된 사각 코의 독일군 장화 등을 착용하였다.<sup>49)</sup> 또한 이들은 TV 뉴스의 테러리스트에 영감을 받아 미스매치된 전투복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무정부주의자(Anarchist)에서 맨 앞글자인 A를 원안에 그려 넣거나(그림 6) 소련 국기의 붉은 별과 망치, 낫을 가죽 재킷에 그려 넣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풍자했다.

1970년대에 기존 체제의 반항을 부르짖던 펑크는 사회에서 소외된 젊은층에 의해 1980년대 초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sup>50)</sup> 가죽 재킷은 오토바이를 타는 갱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맹맥을 유지하였다.

펑크 문화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컴퓨터를 중심으로한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사이버 펑크(cyber

punk)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사이버 펑크는 유행에 따른 모방을 저항하고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 같이 특전용사와 같은 모습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영화 'Made Max'와 'Blade Runner'를 합쳐 놓은 듯한 모습으로 자동차의 휠 캡이나 가스 마스크, 고무 튜브 등 산업 쓰레기와 최첨단 홀로그래픽 직물을 사용하였고 미래의 전사와 같은 모습을 통해 아방가르드한 밀리터리 패션을 보여주었다.<sup>51)</sup>

## IV. 밀리터리 패션의 조형의지

### 1. 아마존(Amazon) 욕구

밀리터리 패션은 전쟁터의 군인이라는 강한 남성의 모습을 자신에게 투사하여 아마존<sup>52)</sup>처럼 되고자 하는 현대 여성들의 의지의 소산이다. 아마존 욕구를 지닌 여성들이 강인한 이미지의 군복에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군복에서 느껴지는 위엄성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위엄성은 나의 위치를 타인이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 주며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해준다.

제복 스타일의 밀리터리 패션에서 넓고 각진 어깨는 현대여성의 당당한 자신감과 위엄성을 표현한다. 여기에 금단추나 금 브레이드 장식 등이 더해지면 더욱 격조높게 위엄성과 권위감이 발산된다. 즉, 밀리터리 패션에서 풍기는 위엄성은 강한 현대 여성의 자신감을 표현한다.

1990년 봄 뉴욕 컬렉션에서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짧게 깎은 머리와 엄격한 제복으로 남성적인 강인한 이미지와 동시에 엄격한 위엄성을 표현하였고 '91-'92 A/W 도쿄 컬렉션에서 가즈 이토(Kazu Ito)는 견장과 플랩을 금박으로 화려하게 강조한 슈트를 통해 제복이 지니는 엄격함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아마존 욕구를 남성 군복의 위엄성을 빌려와 표현하는 것만으로 결론짓기에는 미흡한 구석이 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여성들에게 아마존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의 여성들도 스스로 강해지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나약하고 사랑만을 갈구하는 여성상은 사라진지 오래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불가피 하였던 2차 대전시기에 강한 여성상이 요구되었다. 1940년대의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던 만화로 '원더 우먼(Wonder Woman)'을 들 수 있는데<sup>52)</sup> 이 만화는 여성들에게 믿고 의지할 곳은 자기 자신 뿐이라는 것과 각자가 개인적인 힘을 키울 것을 강조하였다. 강한 여성의 이미지는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 Robert Mapplethorpe는 전문 보디 빌더인 리자 라이온즈(Lisa Lyons)의 사진에서 여성의 강하면서도 글래머러스한 잠재성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에는 대중문화를 읽을 수 있는 영화에서도 강인한 여성상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남성과의 관계에서 그 역할을 전도시킨 '육체의 증거'의 마돈나, '마지막 유혹(The Last Seduction)'의 이태리계 미국인 배우 린다 피오렌티노, '암살자들'의 연쇄살인범 줄리엣 쿠이스 등은 영화속에서 보여지는 강인한 여인들의 전형이었다.<sup>53)</sup>

1990년초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터미네이터II'에서 린다 해밀톤(Linda Hamilton)은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로 스피드와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영화속에서 심플한 민소매 니트 탑에 군복 스타일의 헐렁한 바지를 착용하였고 능숙하게 총을 다루며 적들에게 대항하였다.

1995년 4월 영화로 제작되어 헐리우드를 강타했던 '탱크 걸'에서 주인공 로리 페티(Lori Petty)는 황폐화된 미래의 지구를 지키는 용감무쌍한 여전사로 분하였다. 여기서 주인공은 탱크를 몰고 다니면서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적들과 싸우게 되는데 허름하고 낡은 군복, 여기 저기가 뜯겨나간 니트와 진즈등을 착용했으며 여러가지 소품들을 어깨나 허리, 목에 걸치고 둘러과다한 치장을 하였다. 탱크 걸은 각종 첨단 정보에 노출돼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사이버 세대의 모습이기도 하다.<sup>54)</sup>

강한 여성의 이미지는 밀리터리 패션을 선보인 컬렉션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1975년 제프 쿠퍼(Jeff Cooper)는 밀리터리 패션을 통해 마치 남성처럼 강한 힘을 지닌 여성들을 표현하였다. 이 컬렉션에서 모델들은 군복차림으로 마치 남성들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1992 S/S 컬렉션에서

미치코 고시노(Michiko Koshino)는 가죽 점퍼에 거만한 눈빛으로 담배를 물고 있는 모델을 통해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안나 수이(Anna Sui)는 투구스타일의 검은 머리장식에 17·18 세기풍의 단추 달린 꼭 달라붙는 롱 베스트와 스팅클로 번쩍이는 위장군복을 선보였다.<sup>55)</sup>

안나 몰리나리(Anna Molinari)의 컬렉션에서 모델 안나 팔치(Anna Falchi)는 권총을 잡았고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모델도 완벽하게 검정색 군복을 입고 손에는 채찍을 들었다.

이들은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낸 아마존이었고 밀리터리 패션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 2. 활동성

밀리터리 패션은 1960년대 영패션의 대두와 함께 성장해온 활동성을 표현하며 그 소재가 질기면서 튼튼하여 실용적인 것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의 기호를 만족시켜 주었다.

주머니나 단추, 심지어는 재봉선까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이 군복이다. 그러나 밀리터리 패션은 군복에서 이미지를 얻은 것이라도 일상복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이 지니는 인체공학적, 과학적인 기능성과는 거리가 있다. 간단히 군복의 주머니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전쟁터에서 군인은 휴대해야 하는 필수품이 많기 때문에 주머니가 많이 필요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그 정도로 휴대할 것이 없고 여성들은 소지품을 보통 가방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주머니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밀리터리 패션에서 주머니가 많은 것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다 스포티하고 활동적인 감각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밀리터리 패션의 활동성은 두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모든 소지품을 어깨나 허리에 걸치고 두르는 착장 방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육군 보병의 모습을 살펴보면, 허리에는 수통과 개인휴대용품을 차고, 담요와 텐트를 어깨에 짊어지고 두손엔 총을 쥐고 있다. 이 모습은 배낭과 허리색을 매고, 귀에는 이어폰, 두손에는 책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대 젊은이의 모습과

흡사하다.

밀리터리 패션의 활동성은 20세기 전반기부터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는 스포츠 웨어와 레저 생활의 확대 로 인한 캐주얼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20세기 전 까지만 해도 스포츠는 부유층에서만 즐기던 것으로 패 셔너블한 것으로 지위에 대한 독립적인 상징을 의미하 였다.<sup>56)</sup> 1920년대 이후 스포츠가 대중을 위한 레크리 에이션으로 자리잡게 되자 스포츠를 위한 의복과 매너 는 대중적인 것이 되었다.

활동성은 20세기 전체에 흐르는 캐주얼화의 큰조류 에서 나타난다. Karlyne Anspach는 그의 저서 「The Why of Fashion」에서 캐주얼 스타일을 첫째, 비형식 성을 통한 자유로움, 둘째, 일할 때와 여가시에 입을 수 있는 융통성, 셋째, 건강과 내구성 등 모든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실용적, 기능적인 특징<sup>57)</sup>으로 설명하였다.

공동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개성적이면 서도 그 집단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이 필수 적이다. 1960년대 이후 젊은세대들이 패션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태 도는 밀리터리 패션의 활동적인 특징과 어울려 밀리터 리 패션의 유행에 지속적인 촉진제가 되고 있다.

### 3. 반항정신

1960년대 이후 스트리트 패션에서 전개되었던 밀리 터리 패션은 반항정신의 표현이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스트리트 패션에서 낡은 군복의 유행은 당시 베트남전에서 많은 미국 젊은이들을 죽어가게 한 미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반항이었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한 전쟁 그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의 몸짓이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반전운동에 참여했던 젊 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베트남 유니폼이나 무질서하 게 US army 배지를 부착하는 패드(fad)는 베트남과 미국 양편에 대한 동정심과 전쟁에 대한 의식적인 반 감의 표현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 사회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모조 나치의 유행하기도 하였다.<sup>58)</sup> 이 들에게 밀리터리 패션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젊은이들의 반전운동과 더불어 발생한 히피는 주로

중산층 백인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들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번영으로 정신적 공허함과 권태로움을 가장 많 이 느낀 계층이었다.<sup>59)</sup> 이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완 고한 중산층의 문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중 산층의 가치관을 과감히 버리고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반기를 높이 들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Hell's Angels나 펑크 등 하위 문화를 형성하였던 젊은이들은 도시화의 결과로 소외 감, 좌절, 무관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들은 출세주 의, 인종차별, 물질만능 등 전통적 가치기준에 반발하 였고<sup>60)</sup> 아방가르드한 경향으로 몸판이나 칼라, 플랩 부분을 과도하게 뱃지나 금속 왓펜으로 장식한 검정색 가죽 재킷을 착용하였다. 특히 펑크에게 있어 밀리터 리 패션은 정치적인 항거운동으로도 나타났다. 이들은 나치의 십자 기장 표시로 파시스트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였고 자신이 무정부주의자(Anarchist)임을 상 징적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처럼 요란한 액 세서리로 장식한 검정색 가죽 재킷은 아방가르드한 감 각으로 와일드한 젊은이들의 사회에 대한 반항정신을 표출하였다.

1980년대 후반이후 나타난 사이버 펑크는 폭력적이 고 반항적인 메시지를 이어받아 손쉬운 컴퓨터 네트워크와 자유로운 정보 채널을 수단으로 전통적인 권위 구조를 타파하려 하였고 문명 파괴적인 이미지로 기존 의 미의식에 대한 전적인 부정을 나타내었다. 또한 첨단 테크놀로지와 과학 문명의 발전의 역작용으로 불안 과 소외,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감 등 반사회적인 성 향을 보였다.

## V. 결 론

밀리터리 패션은 남성의 군복에서 디자인의 모티프 를 빌려온 것으로 1, 2차 세계대전때 처음 생겨났다. 물자절약과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 라 이 시대는 군복의 분위기를 지닌 각진 어깨의 테일 러 슈트가 무릎을 살짝 덮는 스커트와 함께 엄격하면 서도 활동적인 분위기를 주었다.

밀리터리 패션은 1960년대 이후 하이 패션에서 디 자이너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는데 전투복에서



〈그림 1〉 각진 어깨의 테일러 슈트(Lee Miller) 「In Vogue」



〈그림 2〉 견장을 컷팅선으로 표현한 코트 (Courrège) 「Vogue」, March, 1963.



〈그림 3〉 밀리터리 컬렉션 Petit Soldat (Dior) 「Life」, September, 1966



〈그림 4〉 구축적 형태의 재킷 (Catherine Walker) 「Twentieth Century Fashion」



〈그림 5〉 육감적으로 표현된 카무플라즈 (Michiko Koshino) 「Collections II」



〈그림 6〉 펑크족의 가죽 재킷 「Street Style」

영감을 받은 경우는 주로 활동성을 강조하여 캐주얼화 되었고 제복에서 모티프를 찾은 경우는 포멀화 되어 클래식하게 표현되었다.

하이 패션에서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난 밀리터리 패션은 미니멀(minimal)한 경향을 보여

쿠튀르 풍의 포멀함을 유지하면서도 심플하고 절제된 라인으로 표현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는 넓은 어깨와 풍성한 실루엣으로 매니시(mannish)한 느낌을 강하게 풍겼고 액세서리나 소품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표현방법이 등장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에는 동구권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프랑스 혁명 200주년(1989년)에 대한 기념의 표시로 많은 디자이너들이 밀리터리 패션을 선보였고 점차 과장된 넓은 어깨는 사라지게 되었다. 1990년대의 밀리터리 패션은 1940년대, 1960년대의 레트로(retro)풍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는 걸프전의 영향과 2차 대전 종전 50주년(1995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많이 등장하였다. 다양한 양상의 밀리터리 패션이 선보였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디테일이나 색채만으로 밀리터리의 분위기를 페미닌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한편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반전운동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은 스포티한 감각으로 유니섹스 아미 룩을 착용하였고 히피들은 허름한 낡은 군복이나 모포를 즐겨 사용하였다. 또한 검정색 가죽 재킷이 징이나 요란하게 뱃지, 나치의 표식 등이 장식되어 아방가르드한 감각의 Hell's Angels, 펑크들이 공격적이고 강한 느낌을 전달하는데 사용되었다.

1960년대 이후 밀리터리 패션의 조형의지는 첫째, 아마존 욕구, 둘째, 활동성, 셋째, 반항정신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밀리터리 패션의 세가지 조형의지에는 공통성이 있다. 아마존 욕구는 상징적인 남성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로, 활동성은 틀에 박힌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로, 반항정신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순된 사회체제나 가치기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신은 '자유'이다. 즉, 1960년대 이후 여성 패션에서 나타난 밀리터리 패션은 현대 젊은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자유에 대한 믿음과 이를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조규화, 복식미학, 수확사, p.248, 1993.
2.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The Viking Press, p.313, 1978.
3. Marily, Diana de, The History of Haute Couture 1850-1950, Batsford Ltd., London, p.143, 1986.
4. Laver, James, Costume and Fashion, Thame and Hudson, London, p.229, 1992.

5. Yarwood, Doreen, European Costume -4,000 years of fashion, B. T. Bats Ford Ltd., London & Sidney, p. 257, 1975.
6. 앞 글, p.257.
7. Laver, James, 앞 글, p.230.
8. Millbank, Caroline Rennold, New York Fashion - The Evolution of American Style, Harry. N. Abrams, Inc., New York, p.59, 1989.
9. Malvaugh, Jane,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Viking, London, p.45, 1988.
10. Glynn, Prudence, In Fashion, George Allen & Uniin, London, p.53, 1978.
11. White, Parmer, Elsa Schiaparelli, Keyspools Ltd., London, p.176, 1986.
12. Nunn, Jone, Fashion in Costume, Schocken Books, New York, p.208, 1984.
13. Glynn, Prudence, 앞 글, p.57.
14. Contini, Milla, 5,000 years of Fashion, Chartweil Books Inc, p.243, 1979.
15. Kemper, Rachel H., Costume, Newsweek Books, New York, p.145, 1979.
16. 조규화, "New Elegance/50년대 여성 패션의 회고", LG상사 패션 CU, 1995.
17. Life, December, 1965., p.82.
18. Bond David, Glamour in Fashion, Guinness Publishing Ltd., Great Britain, p.140, 1992.
19. Brake M, Youth Culture, Routedge & Kegan Paul, London, p.103, 1985.
20. 힐리어, 베비스. 조규화역, 20세기 양식, 수확사, pp. 241-242, 1993.
21. 앞 글, pp.263-264.
22. Baker, Patricia, Fashion of a decade : The 1970s, B. T. Batsford, London, p.38.
23. Laver, James, 앞 글, p.270.
24. Bond, David, 앞 글, p.157.
25. Bond, David, 앞 글, p.173.
26. 山崎秀昭, Fashion Color, No. 43, 日本色研事業株式會社, 東京, pp.24-25.
30. Vogue, September, 1966. p.91.
31. Bond David, 앞 글, p.252.
32. Emily, Fashion 85, St. Martin's Publisher, p.26.

33. Vogue, June, 1988. pp.258-269.
34.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p.112, 1995.
35. Hi Fashion, 文化出版局, 東京, June, 1989. p.55.
36. Hi Fashion, June, 1987. p.112.
37. Vogue, August, 1996. pp.194-203.
38. 浜容子, “Tシャツ物語”, Soen Eye, 文化出版社, 東京, p.37, 1990.
39. Batterberry, Michael and Ariane, Fashion : The Mirror of History, Greenwich House, New York, p.370, 1977.
40. 힐리어, 베비스. 조규화(역), 앞 글, p.197.
41. Rouse, Elizabeth , Understanding Fashion, BSP Professional Books, London, p.89, 1989.
42. Batterberry, Michael and Ariane, 앞 글, p.370.
43. Emily, 앞 글, p.70.
44. Polhemus, Ted, Street Style, Thames and Hudson, London, pp.130-132, 1994.
45. Farren, Mick, The Black Leather Jacket, Plexus Publishing Limited, Gtrat Britain, p.20, 1985.
46. Pearce, Christopher, Fifties-source book , Chartwell Books, New Jersey, p.142, 1990.
47. Laver, James, 앞 글, p.272.
48. 조규화, “뉴 웨이브 패션 (New Wave Fashion)”, 의류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6, pp.118-119.
49. Obalk, Hector, Les Mouvements de Mode, Robert Raffont, Paris, p.212, 1984.
50. Mcdermott, Catherine , Street Style, The Design Council, London, p.24, 1988.
51. Polhemus, Ted, 앞 글, p.127, 1994.
52. 활을 쓸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 유방을 잘랐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용맹스런 여전사. 아마존이란 원래 그리스어로 「가슴이 없는」 의미임. 19세기 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승마부인」, 「키가 큰 강인한 여성」의 의미가 되었다.
53. Image of Women in the Visual Media, Art Education, Vol. 46, March, 1993, pp.60-66.
54. Vogue Italia, 1995. N. 537 pp.102-103.
55. 조은경, 영마켓의 뉴모델-Tank Girl, Fashion Forum Vol. 31, pp.18-19, 1996.
56. Vogue Italia, 1995. N. 537 pp.102-103.
57. Anspach, Karlyne, The Why of Fashion, Iowa State University Press, p.316, 1967.
58. 앞 글, p.312.
59. Glynn, Prudence, 앞 글, p.149.
60. Time, December, 19, 1969, p.23.
61. 베비스 힐리어. 조규화(역), 앞 글, pp.263-264.